



우승 문턱서 또 덜미

이정연, 오초아에 역전패...6년간 5번째 준우승

LPGA 사이베이스클래식 최종

6년 동안 첫 우승에 목말랐던 이정연(28)이 또 정상 문턱에서 좌절했다.

이정연은 21일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아퍼몬트클레이프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이베이스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2타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 역전 우승을 내줬다. 오초아에 2타 앞선 단독 선두로 맞대결을 펼친 이정연은 버디 1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오버파 73타를 치는데 그쳤다.

4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경기를 끝낸 이정연은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때린 오초아에게 3타 뒤져 준우승에 그쳤다.

2002년 LPGA 투어에 발을 디딘 이후 6년 동안 통산 다섯 번째 준우승.

“세계랭킹 1위와 겨뤘 내가 잃을 게 없다”면서 후회없는 승부를 다짐했지만 이정연은 눈 앞에 다가온 생애 첫 우승 기회가 부딪이 된 듯 위축된 모습이 역력했다.

2번홀(파4)에서 잘 친 두번째 샷이 그린에 맞고 프린지까지 뛴겨 나간 이정연은 2m 파퍼트를 놓치면서 오초아에 1타차로 쫓겼다. 이후 이정연은 아이언샷이 자주 그린을 벗어나면서 10번홀까지 답답한 파 행진을 이어가며 역전의 발미를 내줬다.

미켈름 울트라오픈 3위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 2개 대회 연속 '톱3'에 오른 이정연은 12만8천 달러의 상금을 받아 2주 동안 27만 3천543달러나 되는 큰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의 준우승으로 이 대회는 2004년부터 4



이정연이 21일 열린 LPGA 사이베이스클래식 마지막 라운드 16번홀 그린에서 퍼팅에 실패한 뒤 낙심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속 한국인 준우승자를 배출하는 인연을 이어갔다.

6언더파 66타를 몰아친 박세리(30·CJ)는 3위(9언더파 279타)까지 순위를 끌어 올려 시즌 네번째 '톱10'에 올랐고 1타를 잃은 조령아(23·농수산협소핑)는 8위(6언더파 282타)를 차지해 올해 처음으로 '톱 10'에 들었다.



바다 위 '속도 전쟁' 21일 미국 플로리다 인근 해안에서 열린 그랑프리 수퍼보트대회에 참가한 레이스 보트들이 수면위를 전력 질주하고 있다.

나상욱 4언더 39위

PGA AT&T클래식 최종

올해 마스터스를 제패했던 잭 손슨(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클래식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손슨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달러스의 슈가포트TPC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이마다 류지(일본)와 연장 첫 홀에서 버디를 성공시켜 우승컵을 안았다.

손슨은 올해 마스터스를 포함해 시즌 2승이자, 통산 3승을 거뒀다.

이마다는 연장 첫홀인 18번홀에서 티샷이 러프에 떨어진 뒤 260야드를 남기고 무리하게 그린을 공략하다가 해저드에 빠져 생애 첫 우승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렸다.

나상욱(23·코브라골프)은 합계 4언더파 284타로 공동 39위에 올랐다.



22일(화)

- ▲메이저리그(시애틀-클리블랜드)(07 : 55·Xports)
- ▲NBA 플레이오프 2007 동부 컨퍼런스 결승(디트로이트-클리블랜드)(09 : 00·SBS스포츠)
-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14 : 10·KBS 1)
- ▲전국유소년축구 왕중왕전 개막전(14 : 50·KBS2)
- ▲한일 배드민턴 대항전(15 : 00·KBC)
- ▲프로야구(SK-삼성)(17 : 40·KBSN Sports), (LG-두산)(18 : 20·SBS스포츠)
- ▲일본 프로야구(니혼햄-요미우리)(18 : 00·MBC ESPN)

박지성에 1년간 1등석 항공권 제공

아시아나항공 후원 계약 박선수 부모에게도 혜택



아시아나항공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박지성(26)과 공식 후원 계약을 하고 1년간 1등석 항공권을 제공했다. <사진>

아시아나항공은 21일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공식후원계약식 및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박지성과 박지성 부모에게 1년 동안 아시아나 전 노선의 1등석 항공권을 전달했다. 박지성은 이날 베이직세 셔츠와 바지에 하얀색 운동화를 신은 편안한 차림으로 아버지 박성종 씨와 함께 행사장에 도착했다.

강주안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박지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는 명예홍

보대사 위촉장 및 꽃다발, 항공권 전달, 선물 교환 등을 순서로 진행됐다.

아시아나 모험 항공기를 선물로 받은 박지성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자신의 사인을 적은 붉은색 맨유 유니폼 상의를 전달했다.

강주안 사장은 “박지성 선수가 집념과 투지, 끈기로 세계적 스타로 성장한 것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기업정신과도 일맥상통해 후원계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체고 박은경 4관왕

체조 국가대표선발 1차전

박은경(광주체고 1)이 제40회 독일세계선수권대회 대표선발 1차전에서 4관왕에 올랐다.

박은경은 20일 태릉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1차 선발전 마무에서 14,300점, 도마 13,850점, 평균대 14,700점을 획득해 금메달 4개를 휩쓸었다. 이단평행봉에서는 13,100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으나 개인종합에서 55,950점으로 역시 금메달을 따내 4관왕에 올라 세계대회 국가대표 선발에 판란불을 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브라질 축구영웅 호마리우 통산 1천골

브라질 축구영웅 호마리우(41·바스코 다 가마)가 '깜짝계 오류' 논란 속에 마침내 통산 1천호골 고지에 올랐다.

호마리우는 21일(한국시간) 오전 브라질 상 하우아리우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브라질 챔피언십 스포츠 헤시페전에서 2-0으로 앞서고 있던 후반 3분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호마리우는 1985년 바스코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후 22년 만에 통산

1천호골을 달성, 1969년 펠레(통산 1천281골)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천골 신화'를 작성했다.

호마리우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후반 3분, 바스코는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호마리우가 상대 골키퍼를 완전히 속이고 골을 성공시키는 순간 골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기록 달성을 축하했고, 즉석에서 인터뷰가 이뤄지는 흥에 경기가 16분 이상 지연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국제약품 기업광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캠페인은 제 1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보"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어보" 사랑해!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랑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